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 주민소득·예산절감 일석이조

1섬1정원화 정책 80억원 사회적 환원 성과
 목표 신안군 납품 방식 457명 참여·활동
 지방자치 콘텐츠 문화 관광 분야 대상 수상
 “정원 조성 삶의 질 향상 실천 노력하겠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이 주민소득 80억원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신안군청 대공원에서 조합설립 1년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제적 효과 뿐만아니라 주민 소득증대, 소득의 사회적 환원, 신안군의 1섬 1정원화 정

책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과가 소개됐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미래의 청사진 등이 제기됐다.

2023년 5월에 설립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신안군의 1섬 1정원화 사업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 설립됐다.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묘목을 생산해 신안군에 납품한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소득보장을, 군에게는 예산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협동조합은 출범 1년 만에 457명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2023년 31만본의 묘목을 생산해 군에 납품해 1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군은 이를 통해 83억원의 군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138만 본을 생산해 65억원의 조합원 소득을 올리고 군은 423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

타났다. 조합원에게는 연간 평균 2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신안군의 ‘남이 가지 않는 길’과 맥을 같이 하는 협동조합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조합으로 주로 조합원의 구성이 50대 이하 중·장년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계기로 2024년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문화관광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영철 이사장은 “2025년에도 묘목 생산과 보급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원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묘목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음식점·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강진군, 내달 10일까지 접수

강진군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10일까지 ‘2025년도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식점 지원 항목은 △입식식탁 설치 및 교체 △식기세척기 설치 △영업소 개·보수 지원이 포함되며 공중위생업소는 △간판,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로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무허가 건축물 업소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강진군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군청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진군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연납 시 10% 할인

해남군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4·5등급 경유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 연납 신청 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공제해 부과하게 된다.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할인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061-530-5338·5641)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영암군, 내달 3일부터 접수

영암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720곳에 공공요금 지원비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수 침체 장기화를 타개, 민생경제의 회복 등이 취지인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에는 군비와 도비 2억1600만원이 투입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업소가 대상이다. 공공요금 지원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8일 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암군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 매출액 등의 확인을 거쳐 2월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에 나선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 (061-470-2042) 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내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의 한 농가에서 한라봉과 레드향이 출하되고 있다. 진도군은 현장 기술 교육을 통해 당도 13브릭스 이상 과일만을 출하하는 등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고품질 한라봉·레드향 출하

진도군에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이 제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이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한라봉과 레드향은 속이 빈틈없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저농약 과일로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군은 현장 기술 교육을 통해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정 크기 이상의 과일만을

출하하는 등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진도의 한라봉·레드향은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5·10kg 단위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는 32개 농가가 6.9ha에서 150톤을 생산해 약 20억원의 농가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다른 지역보다 연간 1200시간 정도 일조량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15.8도로 따뜻한 난방을 하지 않고도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어서 최근

만감류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 품종 우량 묘목 지원 △맞춤형 전문기술 자문·재배교육 △무인 방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은 청정지역의 따뜻한 바닷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산돼 한번 맛을 보면 깊은 맛과 향에 꼭 다시 찾게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지도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농업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 설맞이 할인기획 행사

24일까지 163개 상품 46% 할인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남미소에 입점된 59개 업체에서 163개 상품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주요 품목은 해남에서 생산된 명품 쌀과 잡곡 18종, 축산물 17종, 수산물 37종, 전통식품 29종, 웰빙 과일채소 27종, 건강식품 21종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해남미소 입점업체의 대표 상품을 혼합 구성한 명품 꾸러미세트는 명절 기간에만 판매되는 인기 상품으로 올해도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8종으로 구성된 1호부터 12종 구성의 4호까지 3만 5000원부터 10만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조기 매진되는 뜨거운 인기로 이번 기획전에서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 대량 주문시 맞춤형 상품 구성도 가능하다. 받는 사람이 직접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해남미소 e-상품권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e-상품권은 선물받은 사람이 해남미소의 우수농수특산물을 직접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 행사로 9만원 결제시 10만원권 증정, 6만3000원 결제시 7만원권 증정, 4만5000원 결제시 5만원권 증정, 2만8000원 결제시 3만원권을 증정하고 있어 구매 혜택도 풍성하다.

해남미소에서는 고객들의 즐거운 쇼핑

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명절 기획전 기간 구매 총액이 가장 많은 구매왕 50명과 행운왕 30명을 선정해 20만원부터 2만원까지 해남미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후기 작성 이벤트와 신규회원 추천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명품 김치 할인전과 김&고구마 신규 상품 런칭 기념 할인 기획전 등 다양한 할인전도 진행하고 있다.

명품관 해남군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지역 농가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해남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
 5개 분야 12개 사업

영암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담·교육으로 자활 능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18·64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주민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근로 능력과 자활 의지 등을 감안해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영암군의 자활근로사업은 5개 분야 12개에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영암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 더맛나사업단, 깨끗한청소사업단, 기를품은사업단·사회서비스형 ,푸른영농사업단, 복지나눔사업단, 협동사업단, 푸르미세차사업단이 대표사업이다.

아울러 영암집수리, 스마일협동조합, 영암희망나르미 등 자활기업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사업도 있다. 올해부터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에코위생사업단’도 추진된다.

자활근로사업 신청과 안내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영암지역자활센터(061-471-9933)에서 한다.

하혜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취약계층의 자활 활동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